



‘천덕꾸러기 콧수염’ 멧덴 ‘KIA 에이스’로 거듭날까

광주FC, 김원식·이한도
K리그1 25라운드 베스트 11



김원식 이한도

광주FC의 무실점 승리를 이끈 김원식과 이한도가 25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5라운드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전반 종료 직전 엄지성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헤이스가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그리고 광주는 33개의 파울이 쏟아진 혈투 속에 1점 차 리드를 지키면서 2연패에서 벗어나 전금 같은 승점 3점을 획득했다.

‘주장’ 김원식이 증원에서 헌신적인 플레이로 공-수를 조율했고, 이한도도 인천의 공세를 봉쇄하면서 팀의 승리를 지켰다.

그리고 무실점 승리를 합작한 두 사람은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1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 FC안양의 경기는 K리그2 25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이 경기에서는 안양이 승자가 됐다.

0-2로 뒤진 후반 19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전남이 이종호의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1-2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멧덴이 ‘천덕꾸러기’에서 에이스로 거듭날까? KIA 타이거즈의 2021시즌은 ‘산 넘어 산’이다. 꾸준하게 이닝을 책임져주던 양현종이 빅리그 도전을 위해 떠나면서 KIA는 새로운 선발진 구상에 나섰다.

외부 영입 없이 ‘진흙 속 진주 찾기’가 진행됐고, 양현종의 이탈로 기회를 얻은 고졸 신인 이의리가 눈부신 성장세로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계보를 잇는 선수로 발돋움했다.

막내가 마운드 빈 틈을 채워줬지만 올 시즌 10개 구단 최고의 ‘외국인 원투펀치’로 기대를 모았던 브룩스·멧덴의 역할이 부족했다.

초반 에리함이 떨어졌던 두 사람은 팔꿈치 통증으로 나란히 재활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외국인 투수 없는 선발진이 가동되면서 KIA는 악몽의 6월을 보냈다. 대체 선발진으로 겨우 살림을 꾸린 6월 한달 KIA는 6승 17패, 0.216이라는 최악의 승률을 기록했다.

7월 1일 브룩스가 마운드에 복귀하면서 팀 분위

팔꿈치 부상으로 기대에 크게 못미친 전반기 후반 첫 경기서 6이닝 1실점 호투 활약 기대

기가 달라졌다.

브룩스를 중심으로 위기의 마운드를 지탱해준 임기영의 꾸준한 활약이 이어졌고, 타선도 힘을 내면서 KIA는 7월 6경기에서 전승을 거뒀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반기가 일찍 마무리된 게 아쉬울 정도로 좋은 기세를 보였던 만큼 후반기에 대한 기대가 컸다. 특히 브룩스가 후반기 반전을 이끌 선수로 꼽혔고, 후반기 첫 경기 등판을 준비했다.

그러나 후반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브룩스가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담배를 반입한 게 세관에 적발되면서 ‘퇴단 조차’됐다.

휴식기 동안 준비했던 마운드 계획이 틀어지면서 KIA는 또 다른 산을 만났다.

우려만큼 후반기 첫 주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다.

하루 앞당겨 출격할 임기영이 5이닝 1실점으로 후반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김현수(5.2이닝 무실점), 멧덴(6이닝 1실점), 이의리(6이닝 1실점)도 모두 역할을 해주면서 KIA는 8연승까지 이었다.

하지만 변수 많은 마운드다.

그동안 임기영이 많은 책임을 지느라 어깨가 무겁다. 두 외국인 선수가 없는 동안 에이스 역할을 했고, 임시주장까지 맡아 부담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4일 휴식 뒤 다시 등판한 15일 경기에서는 1.2이닝 7실점이라는 올 시즌 최악의 성적도 기록했다.

이의리도 올림픽에서까지 실력을 발휘하며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어린 선수다. 투구수·이닝 등에 신경 쓰면서 ‘특별 관리’해야 하는 한국야구의 미래

다.

4·5선발로 기회를 얻는 선수들은 기복이 많은 만큼 결국 멧덴이 해줘야 한다.

팔꿈치 부상이 깊어지면서 멧덴은 올 시즌 9경기 출전에 그쳤다. 전반기가 일찍 중단되면서 복귀전도 늦어져, 지난 13일 SSG전을 통해서 87일 만에 마운드에 다시 섰다.

멧덴은 이날 6회까지 87개의 공을 던지며 7피안타 1사구 4탈삼진 1실점의 효율적인 피칭을 했고, 최형우·류지혁·김선빈의 홈런포가 터지면서 복귀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지난 5월 5일 롯데전 이후 기록된 멧덴의 시즌 3승.

멧덴은 SSG에 이어 ‘천적’ 두산을 상대하게 된다. 두산과는 첫 대결, 잠실 등판도 처음이다.

올 시즌 두산은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발생하면서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다. 두산이 예년 전력은 아니라고 해도 KIA는 올 시즌에도 19일 경기 전까지 2승 4패로 열세를 기록했다.

후반기를 승리로 연 멧덴이 두산을 상대로 연승을 이고 만화의 후반기를 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멀티골’ 뒤편, 독일 슈퍼컵 우승

독일 프로축구 최강 클럽 바이에른 뮌헨이 맞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꺾고 통산 9번째 독일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뮌헨은 18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21 독일축구리그(DFL) 슈퍼컵에서 두 골을 넣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을 앞세워 도르트문트를 3-1로 눌렀다.

독일 슈퍼컵은 직전 시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챔피언과 독일축구협회컵(DFB 포칼) 우승팀이 일반적으로 새 시즌 개막 전에 단판으로 승부를 겨루는 대회다. 올해는 2020-2021시즌 분데스리가 우승팀 뮌헨과 DFB 포칼 정상에 선 도르트문트가 맞붙었다.

경기의 균형을 전한 41분 깨졌다. 세르주 나브리가 상대 페널티지역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레반도프스키가 문전으로 달려들며 헤딩으로 꽂아 넣었다.

전반을 1-0으로 앞선 채 마친 뮌헨은 후반 4분 만에 토마스 뮐러의 추가 골로 한 발짝 더 달아났다. 이후 뮌헨은 후반 19분 도르트문트 마르코 로이스에게 페널티킥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트로 만회 골을 내줬지만, 후반 29분 레반도프스키가 썩어 골로 상대 추격을 꺾었다.

34세의 올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뮌헨에서 공식 경기 첫 승리와 함께 프로 사령탑으로서 첫 우승도 경험했다.

/연합뉴스

‘만능 내야수’ 김도영이나 ‘강속구 투수’ 문동주냐 KIA, ‘대어’ 놓고 끝없는 고민

23일 연고지 선수 1차 지명

1차 지명을 앞둔 KIA 타이거즈는 괴롭다. KBO는 오는 23일 연고지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지명 선수를 발표한다. 올 시즌 가장 눈길을 끄는 팀은 KIA다. ‘호남팜’에 대어가 한 번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만능내야수’ 김도영(동성고), ‘강속구 투수’ 문동주(진흥고)와 함께 ‘강경포수’ 허윤서(순천효천고), 1학년 때부터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끈 동성고 투수 신현민 등이 관심 대상이 됐다.

예상대로 최종 경쟁 구도는 김도영과 문동주로 좁혀졌다.

예년이었으면 이미 선택을 끝내고 미리 지명자

와 교감도 나뉘는 시점이다. 하지만 KIA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투수라는 포지션에 가산점이 더해지기 마련이다.

2001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KIA가 1차 지명에서 야수를 선택한 경우는 2018년 포수 한준수가 유일하다.

여기에 문동주는 150km를 가볍게 넘기는 등 위력적인 강속구를 보유하고 있다. 빠른 공을 가진 선수의 경우 변화구가 거칠기도 하지만 문동주는 변화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강속구 군단’으로 통했던 KIA에 최근 150km 이상을 뿌리는 선수가 귀해진 만큼 문동주의 상대

적 가치도 높다.

예년이었으면 최고 154km의 투수는 구단은 물론 팬들 사이에도 이견 없는 1차 지명 선수다.

하지만 김도영도 특별한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다.

공수-주를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도영은 ‘발’이 특히 강점이다.

우타자이지만 풀 스윙을 하고도 좌타자보다 빠르게 1루 베이스를 밟는다. 3초 6~7대의 놀라운 스피드를 과시하는 김도영은 최근 신일고와의 협회장기 준결승에서 투수 견제에 걸리고도 2루에서 3루까지 내달려 도루를 만들었다. 마산고와의 결승전에서도 번트 안타를 기록하는 등 ‘리틀 이중범’이라는 애칭에 어울리는 실력을 보여줬다.



동성고 김도영

진흥고 문동주

김도영은 운동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놓고 해외 스카우트들이 가장 눈여겨본 선수이기도 하다. 스타성을 갖춘 야수에 목마른 KIA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수다. 야수진 세대 교체는 KIA의 몇 년 간 계속된 고민이기도 하다.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장점이 확실한 두 대어가 동시에 지명을 기다리면서 KIA는 괴로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이지만 두 선수를 모두 품지 못하는 게 구단, 팬들에게 모두 아쉬울 수밖에 없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